



## 러시아는 '대화'와 'New Page'에 초점 맞춰, 한국 주빈국 행사 때는 '문화 일방통행' 경계하길

200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 행사를 총지휘한 러시아 조직위원장 블라디미르 V. 그리고리에프 장관(출판·방송·매스컴 담당)은 러시아의 출판과 방송, 미디어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실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 탓인지 그는 유장한 화술과 리더십으로 주빈국 행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 좌중을 웃음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출판저널>과의 약속도 1시간 이상 지체됐지만 그는 '약속은 약속'이라며 다음 약속을 미루며 별도의 미팅룸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러시아의 문화적 재산은 뭐니뭐니해도 작가들입니다. 러시아 작가들 1백 명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고, 나머지 행사에서도 독일인과 러시아인, 세계인들과 러시아인의 소통을 이루는 데 컨셉을 맞췄습니다."

그의 얘기처럼 러시아는 주빈국관

을 찾는 사람들에게 러시아 작가 1백 명의 소사전을 나눠주는 한편, 정성들여 깎은 연필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 러시아 작가들을 전면에 내세운 인상을 주었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를 위축시킨 것은 아니었다. 특히 IT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상당 부분 축적한 듯 LG IBM 씽크패드 노트북을 10여 대 동원해 그 안에서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것이 러시아 주빈국관이 시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적 특성이었다.

"이번 주빈국관을 위해 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러시아 시각 중심으로 전시하기보다 독일인들이 러시아의 어떤 문화를 보고 싶어하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의 통시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화보다 독일인들이 궁금해하는 문화를 보여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리에프 위원장은 '컨셉은 이해하지만 너무 소박한 전시 방식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발끈, 얼굴을 붉히며 이번 전시 아이টে은 독일의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 독일인의 욕구와 러시아 문화의 총체성을 감안해 선정한 것이라며 한국이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독일 에이전시와 리서치 회사를 통한 여론수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권유했다. 공허한 일방통행식 전시로 헛물을 췌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를테면, 전시장 내에서는 소통의 계기를 줄 수 있는 전시로 관심을 끈 후 전시장 밖의 박물관 행사를 활발하게 전개해 러시아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것이 적중했다는 판단이었다. 러시아는 이번 전시기간 중 10여 개의 공연과 전시를 동시 개최해 독일인들의 저녁 시간을 빼앗는 데 성공했고, 그 열기를 연말까지



러시아 주빈국 행사 중 하나인 야외 특설무대 공연의 한 장면.  
주빈국관과 3홀, 4홀을 끼고 있어 공연 목록을 잘 선정하면 큰 시선을 끌 수 있다.



러시아 국가관에서는 러시아연방 키르기지안 공화국의 대통령 영부인 만크팜 여사가 낸 〈희망은 밤이 없다〉 출판기념회가 열려 경호원들이 기념회를 찾은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기념회는 만크팜 여사의 주제 강연과 그리고리예프 러시아 조직위원장의 축사와 참석자를 위한 리셉션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념회가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영부인이 동양계 여성이었기 때문. 영부인은 핑크빛 한국식 양장을 입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일반인들이 내민 자신의 책에 사인을 해주는 등 시종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희망은 밤이 없다〉는

러시아 연방의 작은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영부인이 직접 쓴 책으로 알려졌으며, 신국판 크기에 600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한편 그리고리예프 러시아 위원장은 영부인의 간곡한 권유를 물리치지 못해 이날 기념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출판저널〉과의 인터뷰 약속을 한 시간 이상 뒤로 미뤄야 했고, 〈출판저널〉 기자들은 그를 찾아 부스 곳곳을 헤매다 러시아 안내원이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영부인의 비서가 그리고리예프인 줄 알고 인터뷰 요청을 했다 취소하는 등 초극을 빚기도 했다.

FRANKFURT 2003  
RUSSLAND-NEUE SEITEN  
RUSSIA-NEW PAGES  
РОССИЯ-НОВЫЕ СТРАНИЦЫ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주빈국관과 국가관에 위와 같은 심벌을 부여해 관람객들 누구나 주빈국관과 국가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되는 행사로 연결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이번 전시기간 중 러시아 작가 1백 30명이 이곳을 방문해 세계 각국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사인회와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내 요원들 대부분을 영어와 독일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배치했고, 사전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리고리예프 위원장의 말대로 러시아 안내원들은 인터뷰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그를 찾아내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위원장의 ‘사전교육 철저’

가 빈 말이 아님을 입증했다. 그런 사실을 말해 주자 그리고리예프는 별로 놀랄 일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자부심 어린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독일 정부와 프랑크푸르트 주 정부와의 협조관계는 아주 유익적이었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는 독일 여자와 결혼했을 정도였고, 18세기에는 독일과 러시아 간의 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했으며, 19세기에는 러시아 사회에 독일말 배우기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한국과 독일의 경우 문화적 차이가 커 접근방법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런 점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라고 충고했다. 독일인들이 의외로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인의 코드와 무관한 콘텐츠를 전시할 경우 무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조직위원회는 약 40명의 정식 직원과 주요 행사 때 동원할 수 있는 100명의 파트타임 제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국제부 홍보부 문화부 팬시부 등 조직위원회 모든 조직원을 가동했고 독일 현지인들을 임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리예프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출판저널〉이 한국의 정통한 출판전문지라는 설명을 듣고는 러시아의 주간 서평 전문지 편집자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최고의 서평 전문지와 교류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언어학을 전공, 영어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리고리예프 위원장은 한국에 가보지 못해 한국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를 할 수 없는 게 유감이라며 러시아 작가 중 누구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삼가야 할 일이라고 입을 단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도발적인 인터뷰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당해 보니 유익한 느낌이라며 다음 약속장소를 향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